

수변문화공학의 새로운 모델

Model for Cultural Engineering on Water Front

홍길표*
Hong Gil-Pyo

요 지

인류가 수렵생활에서 농경문화로 정착됨에 따라, 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이나 호소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고대문명이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고대문명이 근대 산업화에 의한 새로운 문명으로 이어지면서, 종래의 하천이나 호소의 수변공간을 이용한 생활과 문화로부터 대외지향적인 해안공간을 중심으로, 그것이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의 세계화에 수반되어 많은 국가들이 대외지향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일종의 제2의 도시국가형태의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태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저 출산·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류가 긴박하게 진전되고, 도시화율이 90%, GDP의 대외 의존도가 80%에 육박하고 있는 등으로, 고도의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세계 유수의 도시국가의 형태로 이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종래의 하천·호소·해안 등의 수변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발전시켜온 하천공학이나 해안·항만공학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가 미흡하고, 더욱이, 20세기 후반으로부터 시작된 환경적요인의 도입에는 아직까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새로이 형성시켜야 할 수변문화의 효율성제고의 도구로서의 새로운 공학의 발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수변공간의 이용·안전·환경이라고 하는 큰 틀로서의 문화·문명을 만들어 갈수 있는 공학이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수공학 위주의 공학개념에서 종합공학 또는 공학종합의 학문으로서 인문사회, 첨단과학기술까지의 대응함을 고려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物)」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장면, 상황, 규칙 만들기라고 하는 「일(事)」의 디자인까지도 포함되는 공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새로운 수면문화조성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터 무늬 또는 자취를 최대한 살리면서, 최근의 하천·해안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존형 대도시권형의 국토이용에서, 지식산업단지·생산녹지 등을 최대한 아우를 수 있는 소위 글로벌형의 국토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수변문화공학의 모델을 제안한다.

핵심용어 : 수변문화공학, 지식산업단지·생산녹지, 것의 디자인, 일의 디자인,

* 참여회원 · 관동대학교 공과대학 초빙교수 · E-mail : gphong@kd.ac.kr